대승불교서 정법은 곧 보살행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⑩ 정법과 바라밀

"세존이시여,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나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정법과 다르지 않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법이란 곧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밀과도 다르지 않고,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과도 다르지 아니하니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곧 바라밀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돌보아 줄 사람에게는 보시로써 돌보아주면서 몸과 팔, 다리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저들의 뜻을 보호하여 돌보아줌으로 중생들이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바라밀이라 합니다. 마땅히 계로써 돌볼 사람에게는 육근을 지키게 하여 몸으로 하는 행동과 말과 뜻으로 하는 것 등 삼업(三業)을 깨끗이 하고 나아가 앉거나 눕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네 가지 위의를 바르게 하여 저들의 뜻을 지켜 돌보아주면 성숙된 중생들이 정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계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인욕으로써 돌보아줄 사람에게는 만약 저 중생들이 꾸짖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며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경우에도 화내지 않는 마음과 이롭게 하려는 마음과 크게 참는 힘으로써 얼굴빛을 변하지 않고 그들의 뜻을 거두어 성숙되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성숙된 중생들은 정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인욕바라밀이라 합니다.

마땅히 정진으로써 돌보아줄 사람에게는 저 중생들에게 나태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가장 훌륭한 정진과 각가지 행동으로써 그들의 뜻을 보호하여 성숙되게 해 줍니다. 이렇게 성숙된 중생들은 정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정진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선정으로써 돌보아줄 사람에게는 저들 중생에게 산란하지 않는 마음과 밖으로 향하지 않는 마음과 가장 올바른 생각과 나아가 오랫동안 해 온 일과 오랫동안 설해온 바를 끝내 잊지 않고 저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성숙되게 합니다. 이렇게 성숙된 중생들은 정법을 세우게 됩니다.

마땅히 지혜로써 돌보아야 줄 사람에게는 저들이 묻는 일체의 이치를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써 일체의 논의와 일체의 기교, 그리고 궁극적인 이치에 나아가 갖가지 방편으로써 모든 것을 연설하여 저들의 뜻을 거두어 성숙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숙된 중생들은 정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바라밀이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바라밀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곧 바라밀입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법이며 동시에 이것이 바라밀로 통한다는 대승의 근본을 밝히고 있다. 정법섭수와 바라밀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이 육바라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법이 무엇인가? 혹은 수행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결국 중생을 성숙시켜 주는 것이란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을 성숙시켜 준다는 것이다. 매우 간명하면서도 명쾌한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승에 있어서의 정법은 곧 보살행으로 귀착된다는 말이다.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려는 마음 바라밀다의 완덕을 갖추고 있는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성숙된 중생은 다시 정법을 세우게 된다고 하였다.

불교를 복귀사상(復歸思想)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본래의 참 마음, 순수한 그 자리도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불교요 이것이 곧 깨달음 자체의 마음 곧 보리심이라는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기 이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히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수행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고향에 돌아가는 것에 비유해 말하기도 한다.

한 번 본래의 마음자리(心王) 잃어버리고(一從違背本心王)

몇 번이나 삼악도에 들어가고 사생(四生)을 겪었던가?(幾入三途歷四生)

오늘 번뇌의 오염을 씻어 없애니(今日滌除煩惱染)

인연 따라 예전대로 고향에 돌아가네(隨緣依舊自還鄕)

영가법문에도 가끔 설해주는 게송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⑩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

물없는 목욕으로 마음의 때 씻어내야

수행승들이여, 여기 더렵혀지고 때가 묻은 옷감이 있는데 염색공이 그것을 청색, 노랑색, 빨강색 또는 분홍색이나 어떤 다른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면, 잘 물들여지지 않고 선명하게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마음이 더렵혀지면 나쁜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

부처님은 마음의 더러움에 대하여 오염된 옷감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온을 가진 생명체가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온이 있는 존재는 이 말씀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비단, 이 현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삶이다.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자. 만약 수행을 닦고, 버리고, 숨고, 만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삼는다면 평생을 수행한들 수고롭기만 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수박을 앞에 놓고 수박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수박 맛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쪼개야 한다. 그리고 맛을 보고 수박의 달콤한 맛을 알아야 다음에 잘 쪼개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쪼개는 것이, 끊어짐 속에서 언어의 깊이를 아는 것과 같다. 언어의 깊이가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언어 하나하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을 삼가게 된다.

욕심, 탐욕, 악의, 성냄, 원한, 저주, 격분, 거짓된 행위, 질투, 인색, 고집, 선입견, 자만, 오만, 교만, 방일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마음의 더러움을 버린다.

마음의 오염을 버린다는 것은 물건을 버리듯 버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대로 일어나는 삶 속에서 그 일어나는 곳이 나의 집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마음의 오염을 오염이라고 알아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을 멈추는 일이다. 바른 수호를 가질 때, 오염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바르게 보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뱅뱅 돌면서 내가 아닌 나에게 한탄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세움 없이 버릴 수 있다면 가르침이 바르게 수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세상의 오염에 물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명은, 구하고, 기도하고, 천도를 기원하며 좋은 곳에 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러한 태어남은 금을 버리고 구리를 금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기루 같은 삶이다. 마음의 더러움은 실재하는 더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빠져 들어가 결국 전신이 완전히 늪 속에 빠져 죽게 되는 꼴이다. '나' 라는 주체를 행위자로 놓고 수행을 하면 늪에 빠지게 되지만, 나라는 주체를 알고 있는 주인공으로 두고 본다면, 행위의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마음의 더러움을 버린다' 의 참된 의미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때, 그것은 버려져 사라진 것이다. 오온에게 이익과 손실이 없을 때는 이 선택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가도, 약간의 이해득실이 일어나게 되면 찰나에 '나' 라는 주체를 행위자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우리의 본질이 깨끗한 천과 같기에 이런 계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는 본질에 닿는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더 이상 오염된 마음이 생겨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움직이지 않기 위해 부처님은 선정을 닦으라고 말씀하셨다. 선정의 힘은 물들어 있는 마음의 오염에서 기인하는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평정심을 돋우어 선택하는 자 없는 선택을 돕는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반드시 대비심 토대 둔 서원 함양을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㉝ 서원의 중요성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를 위한 서원과 원생, 그리고 자비심에 바탕을 둔 발보리심은 관음신앙에서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모든 신앙에서 신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음신앙을 신행하려면 맨 처음 일체중생을 섭수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원력의 서원을 믿고 함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중생구제의 서원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때의 서원은 개인의 욕망이나 자아를 충족하려는 발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중생을 일체의 고통에서 구해내겠다는 대비심에 바탕을 둔 중생구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기필코 위없는 보리를 이루고 말겠다는 각오를 스스로 다지는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관음보살의 중생구제 발보리심
관음신앙과 대승불교 신행 근본

불자 여러분! 성불을 위한 보살이 맨 처음 일으키는 대비서원(大悲誓願)은 많은 경론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전문학이라고 불리는 〈본생경〉에서는, 석가세존의 전신이었던 수행자 보살이 연등불을 비롯한 스물 네 분의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10바라밀을 닦아 윤회를 벗어나 성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부파불교 문헌인 〈구사론〉에서도 석가세존의 전신 보살이 서원을 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의지할 데 없이 눈멀고 어두운 세계에 있으면서, 반드시 정등각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구원해 주는 이가 되고, 의지가 되어주고, 안목이 되어 주고,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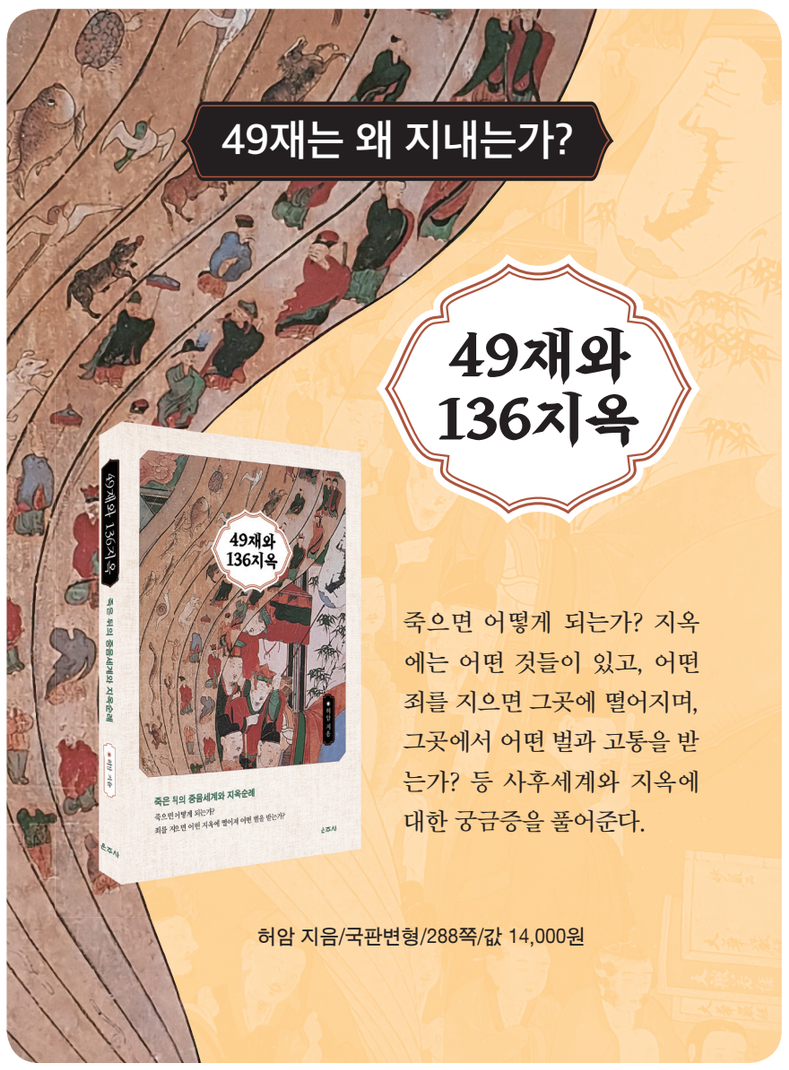
이처럼 석가세존의 전신 보살은 정등각을 얻어 일체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사론〉의 '분별세품' 에서는 보살의 수행에 있어서 '서원' 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살은 원을 세우고 오랫동안 정진하고 수행하여야 비로소 부처의 과위를 얻을 수 있는가? 어찌 원을 세우고 오랫동안 수행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랴! 위없는 보리는 매우 얻기가 어려워, 많은 원력과 수행이 아니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살은 반드시 3무수겁을 지내면서 큰 복덕과 지혜와 자량과 육바라밀과 수없이 많은 고행을 닦아야 비로소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랫동안 원을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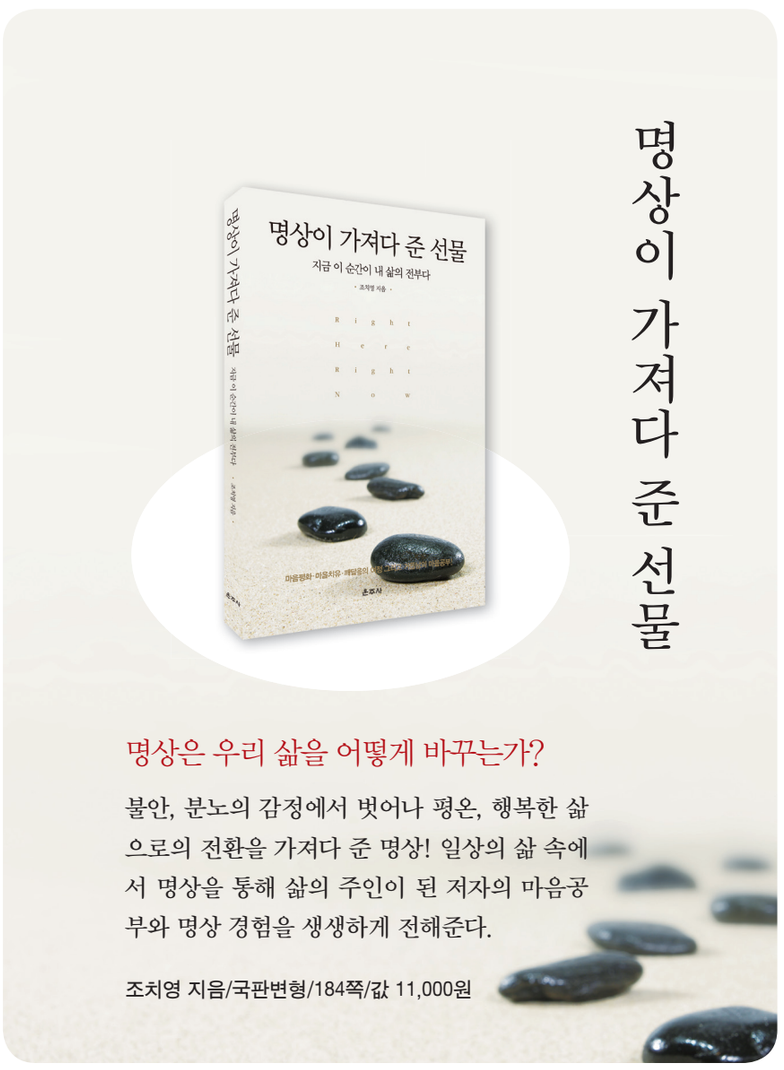
이처럼 정각을 얻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서원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경론에서 서원을 전거(典據)하는 내용을 보았듯이 '서원' 은 무상정등정각을 얻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신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각을 얻어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비심에 바탕을 둔 서원을 일으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은 대비심의 완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는 대비심에 토대를 둔 서원을 반드시 함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